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2期(2026.01.09) WWW.MINGHUI.ORG

한글판 1036호 minghui.or.kr



▲ 2025년 12월 31일, 션원 국제예술단은 프랑스 보르도 아케아 아레나(Arkea Arena)에서 6회 공연을 마쳤다. 2026년 1월 4일, 션원 8개 예술단은 세계 8개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했다. 1월 20일, 션원예술단은 세계 각지에서 14회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주 요 내 용

【해외종합】 션원 8개 예술단 글로벌 공연, 선량한 본성 일깨워

【해외종합】 중국법회 원고 읽은 유럽 수련자들, 깊은 격려 받고 정진 다짐

【해외종합】 중국 관광객 “저 탈당했어요!”

【수련교류】 진정으로 진수(眞修), 실수(實修)를 해내자

【시사평론】 ‘벼락부자’, 과연 좋은 일인가?

〈목차〉

■ 해외종합

션원 8개 예술단 글로벌 공연, 선량한 본성 일깨워	3
중국법회 원고 읽은 유럽 수련자들, 깊은 격려 받고 정진 다짐	9
중국 관광객 “저 탈당했어요!”	15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5
---------------------------	----

■ 수련교류

새해 당부: 진정으로 진수(眞修), 실수(實修)를 해내자	28
여든 넘은 어머니의 평범함 속에 깃든 비범함	35
근본 집착을 제거한 한 가지 깨달음	40

■ 시사평론

각성	45
‘말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그르친다’에서 시작된 이야기	49

■ 문화예술

‘벼락부자’, 과연 좋은 일인가?	55
--------------------	----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션원 8개 예술단 글로벌 공연, 선량한 본성 일깨워

[명혜망](리징페이 기자 종합보도) “션원 공연을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기적입니다!” “션원은 관객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관념의 변화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구원입니다.” “그 에너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감동하게 하고, 당신을 평온하게 하며, 마치 평화, 아름다움, 영성, 사랑과 희망의 힘처럼 당신의 심신을 씻어줍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관련된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창세주가 세상에 내려오시는 장면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서방 국가의 주류 엘리트들은 션원 공연을 관람한 후 각기 다른 언어로 내면의 감사와 얻은 바를 공유했다.

지난 한 주간은 연말연시와 겹쳐 션원은 유럽 5개국과 미국, 대만에서 총 39회 공연을 펼쳤다. 2026년 1월 4일, 션원 8개 예술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대만의 8개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했다.

이탈리아 토리노 6회 공연 매진, 관객들 션원이 가져다준 영혼의 승화에 감사

2026년 1월 5일 오후, 션원뉴욕예술단의 이탈리아 토리노 6번째 공연이 원만히 막을 내렸으며, 모든 회차의 표가 조기 매진됐다.

판사 알베르토 보에티(Alberto Boetti)는 공연 관람 후 말했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이며, 빛처럼 천상에서 내려와 세상을 비추고 구원을 찾는 모든 중생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메시

지는 중생에게 거대한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보에티 판사는 “이 메시지에는 자유, 선량, 자비, 그리고 오래된 전통을 되찾는 것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발레다오스타(Aosta Valley)주 주의원 마르코 카렐(Marco Carrel)은 말했다. “공연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헛걸음이 아니었고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그는 션원 공연 관람이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공백을 메워주었다고 했다.

토리노 인근 산 라파엘레 치메나(San Raffaele Cimena) 시장 에토레 만텔리(Ettore Mantelli)는 찬사를 보냈다. “그들(션원 배우)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공중에서 가볍게 날아다니는 듯해 감탄을 자아냅니다. 정말 매우 훌륭합니다…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탈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주 드로(Dro) 시장 지네타 산토니(Ginetta Santoni)는 션원 관람 후 자신이 얻은 바를 공유했다. “평온과 광명, 이 공연은 내면의 평온을 가져다줍니다.” 그녀는 현장 관객들이 모두 매우 집중하고 몰입해 진심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예술 평론가로 활동했던 무라비오바 이리나(Muraviova Irina)는 말했다. “사람의 영혼을 승화시키는 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고전 무용을 보는 데 익숙한 관객으로서, 션원 무용가들이 보여준 조화로운 감정, 우아한 자태, 장엄한 음악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리나는 이어 말했다. “저는 (션원이 보여준) 신성(神性), 선

량한 이념, 정신적 승화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세속에서 얻는 물질적 진보나 성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더 위대한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성하고 비범하며 인류가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국제 전통무용(중국 고전무용)의 일원으로서 션원이 가져다준 예술과 음악의 아름다움만이 평화, 진보,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장 “션원 공연은 신의 예술이며 인류의 미래 보여줘”

2025년 12월 31일, 션원 국제예술단은 프랑스 보르도에서 6회 공연을 마쳤으며, 매회 만석을 기록해 약 2만 4천 명의 관객이 션원을 관람했다.

“공연은 비록 프랑스에서 있었지만, 다른 차원에서 공연은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흥미를 느낀 부분입니다.” 프랑스 아무레(Amure) 시장 마르셀 모이나드(Marcel Moinard)는 션원 공연 관람 후 찬사를 보냈다. “예술적 수준이 정말 훌륭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아름다움을 초월한 신의 예술입니다.”

모이나드 시장은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신성함을 느꼈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전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션원이 중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영국 버밍엄 힐링센터 대표 “션원 관람은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

1월 4일, 션원글로벌예술단은 영국 버밍엄에서의 마지막 공연

을 원만히 마쳤다. 3일간 4회 공연은 매회 빈좌석 없이 가득 찼다.

“공연은 불가사의하고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힐링센터 대표 스테파니 베인스(Stephanie Baines)는 말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예술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 밤 션원 공연 같은 예술은 우리가 진정으로 본원으로 돌아가게 하고, 인류의 뿌리와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며, 과거 자신을 표현하던 방식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잃었지만, 오늘 밤 션원 공연은 우리가 다시 신앙과 연결되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아간 후에 우리는 보고 겪고 느낀 것을 되새길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 긴밀하고 깊게 연결해 줄 것입니다. 그 불꽃은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점화됐습니다.”

라트비아 교육부 장관 “션원은 정신적 함의가 지극히 풍부하고 사람의 마음 일깨워”

1월 3일부터 4일까지, 션원순회예술단의 라트비아 수도 리가 3회 공연은 만석을 이뤘다. 관객들은 션원이 보여준 예술과 문화적 성황에 찬사를 보냈으며, 공연을 통해 공산주의 이전의 진실한 중국을 보았다고 말했다.

라트비아 교육과학부 장관 다체 멜바르데(Dace Melbārde)는 션원 관람 후 말했다. “매우 고무적이며 공연 전체가 정신적 함의로 가득합니다. 저는 (공연이 보여준) 이런 무형 문화유산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공연의 초석입니다. 공연은 전통문화

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저는 공연과 라트비아 전통문화의 연관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도 생명의 윤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션원의 아름다움은 인류 최고의 경지에 도달” 라트비아 예술가 감동의 눈물

션원 공연은 라트비아의 저명한 예술가들도 불러모았다. 엘리나 쉼쿠스(Elīna Šimkus)는 유럽 클래식 음악계와 오페라계에서 활약하는 소프라노 가수다. 그녀는 션원 공연 관람 후 말했다. “저는 매우 감동해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공연은 가장 순수한 정화(精華)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바로 문화의 아름다움, 그 절대적이고 신성한 아름다움, 그리고 진리와 전통 가치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며 화려한 공연입니다. 전통과 진실한 가치에 기반한 문화적 요소와 음악, 모든 것이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가사를 자세히 읽었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노래한 내용을 이해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나 쉼쿠스는 말했다. “(션원을 통해) 절대적인 명확함과 순수함, 진실한 가치와 도덕에 대한 추구, 그리고 순수하고 맑은 삶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이런 이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따라서 축복을 안고 순결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이번 생을 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하며, 그래야만 우리는 다음 생에서 겪고 기대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다음 생을 위한 길을 닦읍시다.”

베스타르츠 쉼쿠스(Vestards Šimkus)는 라트비아의 유명 피

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라트비아 음악계 최고 권위의 ‘위대한 음악상(Great Music Award)’을 두 차례 수상했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다. 션원 관람 후 그는 말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공연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극치에 달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미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또한 이 공연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담긴 정신적인 측면도 저를 깊이 감동하게 했습니다. 공연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신성한 정신적 영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는 션원이 중국에서 공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언젠가 중국이 중국공산당(중공)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이 션원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미국 관객, 전 세계가 진실한 중국 알기를 희망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레전턴(Pleasanton) 시의원 크레이그 아이허(Craig Eicher)와 부인 킴벌리(Kimberly Eicher)는 처음으로 션원을 관람했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폭로한 무용극은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아이허 의원은 말했다. “저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소년을 구하는 이야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상은 중요하며, 세계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전 시의원 토니 홀(Tony Hall)은 션원 관람 후 말했다. “이 공연은 중국 문화의 뿌리를 보여주는데, 모든 문화의

토대는 결국 도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연의 핵심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생명 그 자체, 즉 생명의 선의(善意)와 진실성에 귀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공연을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대다수 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문화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심오한 이념을 하나의 공연에 농축해 낸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TV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인 케빈 프리먼(Kevin Freeman)은 션원 관람 후 말했다. “저는 여러분께 션원을 꼭 보시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며, 평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여행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은 그 속에서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더 많은 션원 공연 일정과 티켓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ShenYu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법회 원고 읽은 유럽 수련자들, 깊은 격려 받고 정진 다짐

[명혜망](유럽 기자단 보도) 제22회 중국법회 교류 원고를 읽은 유럽의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 수련생들이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 속에서도 대법을 수호하면서 확고하고 착실히 수련하며, 수련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수정하고 시시각각 스스로 대법제자임을 일깨우고 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많은 수련생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힘을 느끼

고 큰 격려를 받았으며, 자신도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련자의 확고함이 수련을 더 진지하게 대하도록 촉진해

2019년에 수련을 시작한 벨기에 수련자 환싱은 중학교 교사이며, 그녀의 열 살인 아들은 한창 관심이 필요한 나이다. 이번 중국법회에서 그녀에게 특별히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법을 외우면서 착실한 수련을 배우다’라는 글이었다. 글을 쓴 수련생은 자신이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깨어나라’ 등 여러 편의 신경문을 단숨에 외웠습니다”라며,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외웠다고 했다. 이는 환싱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련 상태를 돌아보며 자문하게 했다. ‘나는 정말로 수련했는가?’ 그리고 환싱은 생각했다. ‘내가 수련한 지 6년이나 됐지만, 단지 사부님 설법을 모두 읽었을 뿐이야. 최근 업무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법공부에 전념하지 못했고, 그저 서둘러 훑어보며 급하게 설법 읽기를 마치려 했어.’

수련생은 또 이렇게 썼다. “법을 외운 것과 이 기간 계속된 법공부는 저에게 즉시 구세력의 안배와 박해를 단호히 부정하고, 정념을 많이 빨하고, 안으로 많이 찾으며, 정진하는 것을 유지하고,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환싱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안일심이 너무 강한데, 바쁘다는 평계로 그 집착을 덮어 감추고 있어. 나는 안일심과 나의 법공부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집착을 제거해야 해.’

환싱은 또 자신이 최근 일부 속인의 자질구레한 일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벨기에 교육부가 교사의 근무 시간과 급여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하자 그녀의 많은 동료 교

사가 페이스북에 여러 그룹을 만들어 근무 시간을 늘리면서 추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둔성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근황이 몹시 궁금해 휴대폰에 페이스북 앱을 다시 설치해 그룹의 동태를 살폈다. 둔성은 깨달았다. ‘이건 내 연공과 법공부 시간에 심각한 영향을 줬어. 내 마음은 불안하고 속인의 자질구레한 일에 점유당했어.’

여러 편의 중국법회 교류 원고를 읽고 둔성은 깨달았다. ‘수련인으로서 중국이든 중국 이외의 지역이든 어디에 있든, 모두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끊임없이 수련하며 심성을 제고해야 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수련의 목표는 모두 똑같은데, 그건 바로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실천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는 것이야.’ 그녀는 또 생각했다. ‘중국에 있는 수련생들은 도전으로 가득한 힘든 환경 속에서 수련하고 있고, 탄압과 통제를 받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법공부하고 진상을 알리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생활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감시도 없어서 언제든 나와서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잘하지 못하고 있어.’

둔성은 또 홍법과 발정념 측면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다. ‘처음 내가 법을 얻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법을 소개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에서 조직한 홍법과 진상 알리기 활동 참가를 빼면 거의 주변 사람에게 대법 진상을 알리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발정념도 턱없이 부족해. 낮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쉬는 시간에 집중해서 발정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집에서나 주말에 가끔 집안일을 하면서 발정념을 하

지. 나는 이게 발정념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것이고 나의 수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을 내려놓고 발정념을 할 수 있어야 해.’

환싱은 수련생의 교류 원고를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고, 한편으로는 대법의 힘을 느끼며 큰 격려를 받았다. “저는 반드시 더욱 부지런히 노력하며 저의 수련을 가로막는 각종 사람의 마음과 집착을 제거해 우리에 대한 사부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력해 수련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련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싱은 자신의 희망을 말했다. “중국 수련생들이 힘든 환경이지만, 수련을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법회 교류 원고 읽으며 깊은 깨우침 얻어

스위스 수련자 린은 대법을 수련한 지 20년이 넘었다. 매년의 중국법회 교류 원고는 모두 그녀에게 큰 격려와 깨우침을 주었고, 또한 그녀를 수련에서 더욱 정진하도록 촉진했다. 제22회 중국법회 교류 원고 중 ‘수련에서 안으로 찾으니 험한 길이 탄탄대로로 변하다’ 상하편은 그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수련생이 공유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돌파한 과정과 검찰원에 전화를 건 경험을 읽고 말했다. “그걸 저는 그녀가 후천적인 두려워하는 마음과 관념에 대항한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사람의 깨질 속에서 뛰쳐나오는 과정이었고,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주재하려 했고, 진정한 자신이 후천적인 관념으로 형성된 업력에 대항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린은 마침 최근의 법공부 중에서도 깨달았다.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지만 이게 바로 수련입니다.”

그 수련생은 또 남편의 온갖 지나친 행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수련인임을 반복적으로 되새겼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착을 제거하며 남편을 많이 배려했다고 썼다. 린은 그 수련생에 대해 느낀 점을 말했다. “정말로 모든 기회를 포착해 안으로 찾고 자신을 수련하며 승화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주신 심성 제고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고 밖으로 찾거나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린을 탄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주었다. “그래서 그녀가 사람을 구할 때 그런 예상치 못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수련생이 칭찬과 비평을 대하는 태도도 린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다. “그녀는 수련생의 비평에 아주 감사해했고, 다른 수련생이 모두 자신을 옳다고 하고 자신을 치켜세운다면 자신을 해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커다란 깨우침을 줬습니다.” 이는 린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했다. “예전에 저는 제가 정말 어렵게 하나를 돌파했는데, 어떤 수련생이 뭔가 말을 꺼내면 ‘그럼 당신이 하세요’라는 등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저도 아주 빨리 그 마음이 틀렸고 분명히 저의 제고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의식했지만, 여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생은 정말로 아주 감사해했고, 완전히 그런 겸손하고 감사해하는 마음가짐이었었는데, 이를 통해 저는 저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견지하며 매일 걸어 나가 사람을 구하다’라는 글에서 80세가 넘은 노(老)수련생은 20년간 진상 알리기를 견지했고, 심지어 시간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거창한 생일잔치를 열지 말기를 바랐다. 그 수련생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수련생과 비교하면 저는 잘한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저 입을 좀 열고 다리품을 좀 팔았을 뿐인데, 평범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제자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저는 아직 격차가 큽니다.”

린은 이렇게 말했다. “노수련생이 생각한 건 편안한 만년이 아닌, 대법제자로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이었고, 자신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행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건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린은 노수련생과 자신을 비교했다. “시간을 잘 이용하는 면에서 그 노수련생과 저는 차이가 정말로 큽니다. 저 스스로 꽤 좋다고 생각해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수련생과 비교한다면 제가 너무 형편없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많은 법회 교류 글도 린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개인 수련 방면에서 많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착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다그치는가, 어떻게 정념을 더욱 강화하는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수련을 잘하면 사람을 구하는 효과에도 반영될 겁니다.”

린은 중국 수련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중국 같은 사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20여 년을 하루같이 진상을 알릴 수 있었고, 가정, 사회,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모두 시시각각 자신의 수련을 늦추지 않고 자신을 제고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견지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린은 자신의 희망을 말했다. “저도 노력해서 정법 노정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수련생과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중국 관광객 “저 탈당했어요!”

글/ 아일랜드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오늘 이런 진상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온 몸이 떨려요.” “이것들을 보니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파룬궁수련자와 만난 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단체 연공을 보는 것부터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진실한 견해를 말하는 것까지, 이 간단한 일들은 모두 그녀가 국내에서 하고 싶었지만 중공이 허용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녀는 각종 진상 자료를 핸드백에 넣으며 돌아가서 잘 보겠다고 말했고, 떠나기 전 수련자들에게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다.

12월 27일, 2025년의 마지막 토요일에 파룬궁수련자들은 더블린 시내 중심가에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진행했다. 현지 시민들과 세계 각국 관광객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진선인(眞·善·忍) 수련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중공의 박해 및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했다.

더블린 시내 중심가는 인기 관광지로, 즐비한 상점 외에도 트리니티 칼리지, 국립 미술관 등의 랜드마크 건물이 있다. 여름부터 시내 골목마다 관광객들로 붐비며, 주말이면 더욱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주 토요일 오후, 수련자들은 이곳에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진행한다. 관광 성수기에 접어든 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인기 명소 옆에 작은 진상 거점을 마련해 시민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돕고 있다. 중공의 거짓말을 간파한 많은 중국인도 이곳에서 이전에 가입했던 중공의 당(黨)·단(團)·대(隊) 각종 조직에서 탈퇴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언급한 젊은 여성이다가와 수련자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에야 아일랜드에 왔다며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것(파룬궁 진상 알리기 활동)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지난 수년간 줄곧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고통스러웠고, 무엇을 쓰든 먼저 중공의 거짓말과 상투적인 말을 반복해야 했다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을 견딜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출국을 선택한 것이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했다. “완전히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중공이 조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그녀는 국내에 있을 때 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공이 어떻게 파룬궁을 박해하는지, 중공의 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을 포함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녀는 또 중공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고향 공원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지금 더블린에서처럼 단체 연공을 하던 장면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지폐를 사용할 때, 돈에 ‘퇴당보 평안(退黨保平安, 공산당을 탈퇴해 평안을 지키자)’, ‘진선인’이라는 글귀가 적힌 것을 보기도 했다. 그녀는 당시 중공 통치하의 환경이었기에 그것을 보고 좀 무서웠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지

만 그때 이미 마음속에 한 알의 씨앗이 ‘싹텄다’고 느꼈다.

당일 그녀는 수련자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재가 중공의 운동으로 파괴된 것에 대한 고통부터, 노인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서둘러 피해야 하는 무력감까지, 온갖 사회적 기현상을 보며 매우 억눌리고 허탈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착한 사람이 되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련자는 그녀에게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사회 전체 도덕을 타락시켰으며, 피해자는 수련자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인이라고 말해줬다. 중공이 진선인에 따라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고, 또한 진선인이 좋으며 중공이 부추기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대화 도중 이 여성의 정서는 서서히 안정돼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가 진선인에 찬성하는 것을 보고 수련자는 파룬궁의 핵심은 사람이 진선인에 따라 수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람마다 이 세 글자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지만, 관심이 있다면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에 매우 상세히 서술돼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전단에 적힌 falundafa.org 웹사이트에서 모든 파룬궁 서적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말해줬다. 그녀는 기뻐하며 가서 책을 보겠다고 했으며, 그 자리에서 중공 조직을 탈퇴하고 수련자에게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다.

중국 관광객 “탈퇴합니다, 저 탈퇴해요!”

어느 토요일, 한 무리 중국 관광객이 쇼핑 후 진상 거점을 지나갈 때 수련자가 뒤처져 걷던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중문 명예 진상 잡지를 건넸다. “소책자 한 권 보시겠어요?”

여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손 하나가 뻗어 나와 자료를 받아 갔다. 수련자는 그제야 뒤에 남성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보고, 붉은 스카프를 맴거나 공청단에 가입했다면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즉시 말을 받았다.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켜 1천만 명이 죽었고, 대기근으로 1천만 명을 굶겨 죽였으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투쟁해 또 1천만 명을 죽였으니,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안 했소!” 수련자가 “그러니 우리 어서 탈퇴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그는 즉시 대답했다. “탈퇴합니다, 저 탈퇴해요!”

말을 마친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앞서가는 다른 관광객들을 뒤쫓으며 가볍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들이 저더러 탈당하고 해서 저 탈당했어요!”

“저는 여러분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토요일 오후, 작은 가방을 멘 세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관광을 마치고 길가에 서서 집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본 수련자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진상을 알렸다. 그중 체격이 건장한 남성은 자신들이 시안에서 관광을 왔다고 말했다. 수련자가 삼퇴(중공의 3대 조직 탈퇴)를 했는지 묻고, 공산당이 믿는 것은 마르크스이며 그것은 우리 중국의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하자 그는 동의를 표했다. “저는 여러분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말했다. “또 당을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안만 해도, 제 성은 친(秦)인데 우리는 진시황의 후손이지 공산당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어 그는 가명으로 이전에 가입했던 중공 조직에서 탈퇴했고,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중년 남성도 진상을 이해한 후 함께 삼퇴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 유모차를 밀던 중국인 리(李) 씨가 수련자가 나눠주는 중문 명혜 잡지를 보고 웃으며 이미 읽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의 자료가 중공 100년간의 진실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며 칭찬했다. “100년 동안 중공은 나쁜 짓만 골라 했으니, 그것은 정말 사교(邪教, 사이비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민 온 지 오래됐고 근처에 살며 이미 이전에 중공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중공의 선전을 본 적이 있다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다. “여러분이 진상 알리는 데 돈은 누가 줍니까?”

수련자는 그에게 파룬궁수련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며 여가 시간을 이용해 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수련자는 잠시 뒤 야간 근무를 하러 가야 하며, 전단은 수련자들이 직접 돈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련자는 또 파룬궁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진선인이며, 수련자들은 자신이 혜택을 입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중공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군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사부님의 무량한 자비로운 제도 하에 세상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만상이 갱신되고 천지가 감사드리는 이때, 세계 각국 대법제자들이 사부님의 즐거운 새해를 기원했다! 제자들이 자신을 닦고 사람을 구하며 인연 있는 중생과 함께 찬란하고 고금에 없던 새로운 기원(紀元)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신, 사부님의 자비로운 고도(苦度)에 끝없이 감사드린다. 중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스페인,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스, 몽골, 브라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란, 라오스,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인도,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페루, 키르기스스탄, 체코,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루마니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팔라우, 튜르키예, 리투아니아, 태국, 필리핀, 대만 등 59개 국가와 지역의 대법제자들이 사부님의 즐거운 새해를 기원했다!

독일과 스위스 독일어권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독일 수도 베를린에 모여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 파룬궁수련자와 세상 사람에게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신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간의 언어로는 사부님에 대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자인 레나테(Renate)는 독일 남부 출신으로 2005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부님의 안배로 자신이 수련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고 믿는다. 그녀는 남아프리카에서 실습할 때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당시 그 친구는 매우 우울해했다. 몇 년 후 레나테가 거리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을 때 친구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 상태가 아주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제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더니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련 후 레나테는 심신이 건강해지고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게 됐기에, 올바른 인생길로 이끌어주신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 “신성한 수련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생명의 의미를 찾게 해주신 사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연말연시와 겹쳐 션원은 유럽 5개국과 미국, 대만에서 총 39회 공연을 펼쳤다. 2026년 1월 4일, 션원 8개 예술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대만의 8개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했다. 메릴랜드주 주지사 웨스 무어, 부지사 아루나 밀러(Aruna Miller) 및 주 국무장관 수전 C. 리(Susan C. Lee)는 션원예술단이 메릴랜드주 시민에게 제공한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표창장에서 “여러분은 고도의 성실함과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큰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고 명시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공연 전야에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션원예술단 앞으로 특별 축전을 보내 션원이 ‘론 스타 스테이트(Lone Star State)’에 온 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션원의 새로운 시즌 공연이 원만하게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애벗 주지사는 편지에서 “텍사스 주지사로서 션원예술단이 2026년 세

계 순회공연을 위해 텍사스에 온 것을 환영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션원을 주최하는 것은 론스타 스테이트의 자랑이며, 중국 전통문화를 드높이는 이 세계적 수준의 제작물이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남을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선사하는 무용가, 음악가, 주최자, 감독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들의 헌신이 이번 순회공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새해 전야, 세계 각지가 다른 축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중국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파룬궁수련자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대한 신앙 때문에 불법 구금돼 있어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 12월 31일, 일부 일본 파룬궁수련자가 주일 중국 대사관 및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영사관 앞에 가서 현수막을 들고 평화롭게 항의하며, 중국공산당(중공)에 26년간 지속된 파룬궁 박해를 즉시 중지하고, 생체 장기적출을 중단하며, 불법 구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자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며 함께 박해를 제지할 것을 촉구했다. 당일 일본 구마모토 지역 파룬궁수련자가 규슈 지역 중국영사관 앞에서 박해반대 평화 시위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 참혹한 인권 재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2026년 신정, 일본 파룬궁수련자는 관례에 따라 도쿄 구단시타를 찾아 하츠모데(일본 새해 기원 활동)하러 온 시민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수련자에게 가한 고문 및 장기적출 등 박해 진상을 알리고, 각계의 관심과 박해 공동 저지를 호소했다. 많은 사람이 새해 인사와 함께 자료를 받아 갔으며, 진심으로 수련자를 응원하고 박해가 조속히 끝나기를 기원했다. 요시카와 씨는 진상을 알리

는 수련자가 “중공이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수련자를 격려하며 말했다.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받을 것입니다. 중공은 결국 고위층의 안위와 수명 연장을 위한 사욕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지 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으니 꼭 힘내세요!”

2025년 12월 27일 저녁, 하와이의 한 진상점(파룬궁 박해 실상을 알리는 곳)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와이키키(Waikiki) 관광지구 칼라카우아(Kalakaua) 대로에서 전시판, TV 영상, 공법 시연, 자료 배포, 진상 알리기 등의 방식으로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대법의 아름다움과 박해 진상을 전했다. 많은 관광객이 수련자들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동해 자발적으로 전시판 앞에 멈춰 서서 진상을 알아보았다. 적지 않은 관광객이 파룬궁을 처음 알게 됐는데, 수련자 얼굴의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단번에 그들로 하여금 파룬궁의 평화로움을 느끼게 했다. 또한 적지 않은 관광객이 파룬궁수련자의 생체 장기적출 진상을 본 후 충격을 받고 동정과 관심을 표했다. 더 많은 관광객은 자료를 받고 진상을 명백히 안 후 감격해하며 “여러분이 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런 진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202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슬로바키아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주말마다 니트라(Nitra)와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두 도시에서 여러 차례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알렸다. 수많은 시민이 청원서에 서명하며, 26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온 트레이너 얀카(Janka)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극히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매우, 매우 사악합니다.”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스위스 파룬궁수련자들의 진상 부스는 스톡홀름 구시가지로 통하는 가장 붐비는 왕궁 옆 뮌트토리에트 광장에 마련됐다. 활동 현장에는 ‘파룬궁 박해 중지’라는 눈에 띠는 현수막이 유난히 주목을 끌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파룬궁수련자는 온화한 연공 음악에 맞춰 공법을 시연했고, 어떤 수련자는 세심하게 행인에게 파룬궁을 소개하며 박해 진상을 폭로했다. 시민들은 진상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서명해 박해를 반대했으며, 적지 않은 사람이 파룬궁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한 중년 부부는 “우리 폴란드인은 아주 잘 알고 있고 많은 일을 겪었기에 공산주의가 가장 사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들의 현재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게 돼 기뻐요. 제 개인 소셜미디어에 많이 공유할게요”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파룬궁수련자가 하는 일(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폭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고 여겼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허난성 뤄양시 파룬궁수련자 셰젠(謝健)은 2025년 3월 중순, 시민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좋다는 진상을 전파하다가 뤄양시 공안국 시궁 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7월 중순 그녀는 뤄양시 시궁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허난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이번이 그녀가 두 번째로 허난성 신상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는 것이다. 2015년 12월, 셰젠은 멍진현 법원에서 5년형을 불법 선고받았고, 옥중에서 그녀는 ‘전향’을 거부하여 바오자(包夾, 감시하는 죄수)들의 감시와 독방 감금 등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광저우 판위구 파룬궁수련자 우스위(吳世宇), 장진어(張錦娥) 부부는 2024년 9월 13일 판위구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스차오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된 후, 판위구 공안분국, 판위구 검찰원, 하이주구 검찰원으로부터 1년 넘게 불법 구금 및 모함을 당했다. 2025년 12월 26일, 광저우시 하이주구 법원은 우스위와 장진어에게 각각 불법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하고, 벌금 각 3천 위안을 갈취했다. 가담자로는 이른바 재판장 웨이샤오밍(韋曉明), 심판원 차오자오밍(曹昭明), 리샤오위안(李小苑), 공소인 랴오샤오펑(廖小鳳)이 포함됐다. 이는 웨이샤오밍이 2024년 9월 이래로 억울하게 판결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파룬궁수련자다.

치치하얼시의 76세 파룬궁수련자 리더룽(李德榮) 할머니가 2025년 10월 15일 정양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모함을 당한 후, 젠화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4년형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5~6차례나 가택수색과 강탈을 자행했고, 증거를 맞춘 후 서둘러 검찰원과 법원에 넘겨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할머니에게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 리더룽의 남편은 반신 불수로 4년간 침상에 누워 지냈지만, 그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상태가 아주 좋았다. 이번에 리더룽이 또다시 납치되는 것을 목격한 남편은 근심과 불안으로 건강이 날로 악화됐고, 리더룽을 그리워하다 2025년 12월 9일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가족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리더룽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충칭시 허환구 파룬궁수련자 푸위안성(蒲元勝)은 2025년 2월 25일 경찰에게 납치돼 난안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1월경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3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융촨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고 있다. 푸위안성은 약 68세로 현재 충칭시 난안구 차위안에 거주한다.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고 대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그는 여러 차례 중공의 박해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세뇌반으로 끌려가 한 달간 불법 감금됐고, 2018년에는 다시 구치소에 1년간 불법 감금됐다. 2021년부터 그는 거의 매년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지린성 쓰핑시의 67세 파룬궁수련자 더우리나(竇麗娜)는 2025년 4월 22일 쓰핑시 톄동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15일간 불법 구류처분을 받은 뒤, 다시 쓰핑시 구치소로 납치됐으며, 2025년 5월 7일 톄동구 검찰원에 송치돼 모함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약 한 달 전, 더우리나는 이미 억울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더우리나와 남편 장커장(張克江)은 파룬따파 신념

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 당국에 여러 차례 납치돼 불법 강제노동과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25년 10월 29일 지린성 수란시 파룬궁수련자 청레이(程磊)가 광동성 광저우시에서 국보에게 납치된 후 줄곧 소식이 끊겼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레이이는 이미 광저우시에서 불법적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레이이는 올해 59세로 이전에 그는 한 차례의 불법 강제노동과 두 차례의 불법 징역형으로 합계 10여 년간 박해를 받았으며 창춘 톄베이 감옥에서 갖은 고문과 독방 감금 등의 고초를 겪으며 심각한 심장병을 얻었고 이로 인해 공안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톈진 우칭구 파룬궁수련자 구자(郭嘉, 또는 郭佳)는 2025년 9월 3일 톈진시 우칭구 양춘진 취안싱로 파출소와 국보 경찰 7~8명에게 납치, 가택수색을 당하고 불법으로 톈진 우칭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을 당했다. 11월 24일 불법 재판을 받았고, 12월 30일 불법적으로 징역 2년 10개월과 벌금 1만 2000위안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내몽골 츠평시 파룬궁수련자 왕평화(王鳳華)는 2025년 12월 16일 위안바오산구 법원에서 2년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왕평화는 올해 55세로, 츠평시 위안바오산구 위안바오산진 바자촌 사람이다. 그녀는 ‘진선인’ 신앙을 견지하고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12년 위안바오산구 법원에서 7년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현지 중공 요원들에게 괴롭힘, 가택수색, 납치, 세뇌반 감금 등을 빈번히 당했다. 2025년 6월 20일 저녁, 왕평화는 파룬따파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위안바오산구 공안 분국 국보 경찰과 원산루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했고, 위안바오산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 수련교류 ■

새해 당부: 진정으로 진수(眞修), 실수(實修)를 해내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이 교류 문장을 쓸지 말지에 대해 사상적으로 많은 교란과 우여곡절이 있었고,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꽤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펜을 들어 쓰기로 결정했다. 일깨우는 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들이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1. 병업 가상 문제

올해 현지에서 병업(病業)이 나타난 수련생들이 예년 어느 때보다 많았고, 어떤 경우는 꽤 심각했다. 수련생들이 발정념을 도와주고 함께 법공부하고 교류했는데, 어떤 수련생은 호전되고, 어떤 수련생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어떤 수련생은 속인의 수단을 채택해 병원에 갔으며, 또 어떤 수련생은 구세력(舊勢力)에게 육신을 빼앗겼다.

연말에 또 80대 수련생 한 분이 심각한 ‘A형 독감’ 증상 가상이 나타났는데, 고열, 호흡곤란, 기침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됐다.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단 두 명의 수련생만이 돌보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사부님의 보호 아래 기적이 나타났다. 속인들은 모두 한때 의식을 잃었던 노년 수련생이 놀랍게도 빠르게 위험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보름 후에는 법공부와 연공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는 것도 아무 도움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이 노년 수련생은 병업 고비에

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저것 원망하는 정서가 없었고 매우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병업 중인 어떤 수련생들은 다른 수련생에게 악담을 하고, 선심(善心)이 없으며, 원망하는 마음이 크다. 어떤 수련생은 극력 사람마음을 감추고 입으로는 명리정(名·利·情)을 내려놓았다고 말하는데 심성을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크게 화를 낸다. 어떤 이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뒤에서 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의 수련생들을 사부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줄곧 자비롭게 일깨워주시지만, 수련생 자신이 심성을 닦지 않아서 어떤 이는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난다. 어떤 수련생은 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 안으로 찾았는데 왜 아직도 안 좋아지는 거야?” 이런 말은 사부님께 불경한 것 아닌가? 이것은 수련인의 사상이 아니다.

병업 중인 수련생들이 무조건 자신을 수련하기 바란다. 진정으로 진수(眞修), 실수(實修: 착실한 수련, 실제적인 수련)를 해냈을 때 상황에 반드시 전기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깨달은 바는 수련생들이 매 순간 수련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법의 위력과 사부님의 자비라는 점이다. 일부 수련생들은 다른 수련생이 병업 고비를 넘도록 도운 뒤 신기하게 회복되자 우쭐해하며 그 경험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교류하며,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선전한다. 사부님의 은덕과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성공과 수확, 모든 것은 대법에서 나온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과 사부님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늘 자

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며, 누구는 그녀가 이끌고, 누구는 그녀가 불러왔으며, 누구는 그녀 덕분에 정진하게 됐다는 등의 말을 한다. 어떤 수련생들은 정말로 “나는 누가 관리한다”, “나는 누가 이끌어주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수련인이다. 사부님의 보호와 가지(加持)가 없다면 진흙보살이 강을 건너듯 자신조차 보전하기 어렵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나타날 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자심생마(自心生魔)와 멀지 않다.

또한 수련생에게 병업이 나타났을 때 너무 많은 수련생을 동원하여 발정념하고 교대로 간호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조(팀)의 수련생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련생은 사람을 구하는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모든 수련생의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바를 때 수련생의 병업 허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2. 법공부와 득법의 문제

수련생들은 모두 법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장기간 법 외우기를 견지하고, 일부는 장기간 법 필사하기를 견지한다. 법공부하는 태도로 볼 때 이는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많은 법을 배운 후 우리가 진정으로 득법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부 수련생들은 법을 많이 배웠지만 일을 만나면 법으로 가늠하지 않고, 처리 방식이 모두 속인의 사유와 속인의 수단이다. 그리하여 일부 수련생들은 그토록 꾸준히 법공부를 하지만 진수, 실수를 하지 않아 각종 교란이 끊이지 않고, 병업 침습, 가정 갈등, 시비 분쟁 등이 잇따라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진정으로 득법했는지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법공부를 많이 하는 기초 위에서 어떤 일이든 대법의 기준에 따라 대할 때만 교란을 해소할 수 있고, 견고하고 평온한 수련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귀납하면 역시 이 말이다. 반드시 진수, 실수를 해야 한다.

3. 자료 배포와 진상 알리기의 문제

20여 년의 풍파를 겪으며 크고 작은 고비를 넘어 오늘날까지 여전히 대법 수련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지금은 이미 최후의 최후에 이르렀고,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가며, 이제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자신이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진상 자료를 배포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배포한 자료를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읽었는지, 안으로 수련하고 ‘안으로 찾는’ 실수 방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2020년 말부터 중공 악당이 ‘제로화(淸零)’ 박해를 발동한 이후 구세력이 안배한 ‘두려움’이라는 사유가 일부 수련생들을 단단히 가두어 감히 자료를 배포하지 못하고 감히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 그저 법공부, 법공부만 하며 오전, 오후, 저녁 모두 법공부를 안배한다. 사람을 구하는 상황을 보면 일부 수련생들은 정말로 ‘제로’ 상태다. 당신의 서약을 이행했는가? 위약의 결과는 무엇인가?

반면 일부 수련생들은 장기간 최전선에서 사람을 구하며 평온하고 담담하게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수련생들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희망하건대 매 대법제자가 모두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란다.”(정진요지3-프랑스법회에)

안타깝게도 일부 수련생들은 정말로 자료를 한 부도 배포하지 않는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어려워도 당신이 갈 길이 있으며 당신이 찾는지 찾지 않는지에 달렸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발정념을 하면 된다고 한다. 당신이 거기서 발정념만 하고 가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련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어떤 사람이 책을 보는 것과 같이 책만 보고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은 대법제자인가? 그것은 대법수련이 아니다.”(각지 설법11-20년 설법)

현재 감시카메라가 도처에 있고, 악당은 여전히 나쁜 사람들을 부추겨 진상을 전하는 대법제자들을 악의적으로 신고하게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형세가 매우 공포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허상이며, 동시에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형세이든 사부님께서 자비롭게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일러주셨다면 그것은 길이 있다는 것이다. 사부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악당에 겁먹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나서서 최대한 힘써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린다면, 비록 정말로 자료 한 부만 배포한다 해도 줄곧 최전선에서 걸어온 수련생들의 압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법제자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모두 노정이 있는 것이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간 것이다. 되돌아보면 어떤 일은 잘하지 못했는데 다시 보완할 기회가 없다.”(각지 설법11-20년 설법)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에는 수련생들이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대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극히 엄격하다. 일부 수련생들은 사람을 구하는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호사심, 과시심, 수구(修口)하지 않는 등 불량한 관념에 이끌려 자주 전체에 파동과 시비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이러한 수련생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자신의 행위와 말을 점검해 보라. 어떤 행위가 사람의 행위이고, 어떤 말이 대법의 기준 요구와 배치되는가? 시간이 정말로 많지 않다. 빨리 정신을 차리라.

별로 실수하지 않고 자주 시비를 일으키는 개별 수련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공간장에 구세력이 심어놓은 부패한 생명이 조종하고 있어서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자주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련생들 사이에서 시비를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며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새해가 왔다. 수개월 동안 마음속에 놀려두었던 말을 했다. 글을 쓰는 기점은 전체의 승화를 위한 것이며, 마음가짐을 반성하되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고, 더욱이 수련생을 폄하하거나 수련생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부 상황이 현지와 주변 지역에서 장기간 존재하는 것을 보고 이 글을 써서 교류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곳은 버리고, 계발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 기회에 사색하라. 요컨대 전체의 제고를 위한 것이며, 구제한 중생들을 데리고 함께 사부님을 따라 각자의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사람마음의 작용 하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듭거듭 하지 말라.

진심으로 수련생들이 조용히 명혜편집부의 ‘사부님 평어 문장’ 모음집을 읽기 바란다. 마음을 다해 읽고 마음을 다해 체득한다면 반드시 대법의 무한한 법력을 느낄 것이며, 무슨 두려움이든 무슨 난법 현상이든 모두 대법에 의해 깨끗이 씻기고 걸러질 것이다. ‘사부님 평어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강대한 법력의 작용 하에 자신도 따라서 가볍고 투철하게 변한다. 몸과 마음이 법에 동화된 후의 아름다움은 오직 수련이 위치에 이르러야 체득할 수 있다. 우리 함께 법에서 실수하고 진수하자.

마지막으로 사부님께서 ‘관건 시각에 사람 마음을 본다’에서 하신 설법 내용을 공손히 기록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로 격려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이것이 말후(末後)에 수련하지 않는 자, 가짜로 수련하는 자, 성심껏 수련하지 않는 자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후에 세상 사람을 구하면서, 동시에 대법 내부도 청리(清理)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누구도 대법 환경 속에서 파동을 일으킬 수 없는바, 이는 난법(亂法)이다! 누가 했는가? 그럼 그 사람이 만회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관건 시각에 사람 마음을 본다)

이상은 개인적인 인식이며, 만약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허스(슴十)

여든 넘은 어머니의 평범함 속에 깃든 비범함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일련(一蓮)

[명혜망] 여든이 넘으신 제 어머니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신 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수년 간 대법제자의 세 가지 일을 꾸준히 잘해오셨으며 늘 진상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1. 일상 속 부지런한 노동, 덕분에 혜택받는 효자 자손들

어머니는 평생을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생산대 시절부터 일 잘 하기로 소문난 분이셨고 잠시도 손을 놓지 못하는 성격이셨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셨는데 당시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밤을 새워 베를 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자다 깨어보면 늘 베를 짜고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며 아끼고 아껴 집을 두 채나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을 과도하게 혹사한 탓에 기관지염, 폐기종, 심장 질환 등 온갖 병에 시달리셨고 큰 수술도 한 번 받으셨습니다. 키가 160cm 가까이 되는데 몸무게는 고작 30kg 남짓할 정도로 뼈만 남으셨고 마을에서는 유명한 ‘약골’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새 삶을 얻은 것은 바로 대법을 수련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여든이 넘으셨지만 마당에는 닭과 개 울음소리가 정겹고 농작물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제때 채소를 심으시는데 300m² 남짓한 마당은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늘 수확물이 가득합니다. 자식들과 이웃들 그리고 수련생들은 어머니가 주신 친환경 채소를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섞인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니가 키우는 닭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달걀 낳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닭들은 더위나 병으로 죽어나가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닭은 딱 한 마리가 족제비에게 물려간 것 외에는 모두 건강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즉시 닭장을 고쳐 더 큰 손실을 막으셨습니다. 채소 수확량도 어찌나 많은지 오이를 따면 몇 보따리씩 나와 여러 집이 나누어 먹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실까 봐 일을 그만두시라고 권했고 두 남동생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칠 줄 모르는 기운으로 즐겁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늘 수련을 최우선에 두고 남는 시간에 농사를 짓는 등 시간을 아주 합리적으로 안배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말리지 않게 됐습니다. 자식과 손주들도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선한 채소를 거저 얻어먹을 수 있고 어머니까지 즐거워하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삼 남매는 수시로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리며 서로 어머니를 모시려 경쟁하고 어머니는 그런 생활에 매우 만족해하십니다.

2. 부러움을 사는 건강, 늘 입에 달고 사는 대법 진상

어머니가 사시는 마을에는 10일에 네 번 장이 서는데 어머니는 진상을 알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주 장에 가십니다. 평소 자손들이 대신 장을 봐드리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늘 싱글벙글 웃으시며 거절하십니다. “나갔다 오면서 바람도 쐬고 좋단다. 너희는 너희 일 보렴!”

장에 가실 때마다 어머니의 몸놀림은 어찌나 가벼운지 그 걸음

걸이를 보고 지인들이 감탄하곤 합니다. “세상에, 어딜 봐서 여든 넘은 분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습관처럼 말을 이어받아 진상을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이보게, 내가 파룬궁을 연마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진 거라네. 자네도 내 예전 병약했던 모습 알지 않나? TV에서 떠드는 유언비어 듣지 말게. 속아 넘어가면 큰 일이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 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외워보게. 그러면 큰 복을 받을 걸세. 꼭 기억하게!” 그러면서 틈틈이 진상 자료를 건네십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다가와 자료를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집을 나서실 때는 늘 강대한 정념을 발하십니다. ‘사부님, 제자에게 힘을 주시어 가는 곳마다 사악이 멀하게 해주소서.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도다(佛光普照 禮義圓明). 법정건곤, 사악전멸(法正乾坤 邪惡全滅).’ 대법 진상 스티커를 붙이시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보기만 하고 뜯지 말게 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사부님, 불일 때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매번 순조롭게 다 붙이고 나면 그제야 길에 행인들이 많아지고 붙이는 동안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임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는 대법의 초범성과 사부님의 넓고 깊은 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하십니다.

3. 꾸준한 새벽 연공, 법공부와 마음 닦아 고비를 넘기다

어머니는 현재 혼자 살고 계십니다(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하시는 어머니는 곁에 있으려

는 저희를 만류하십니다. “나는 대법을 수련하니 사부님이 보살펴 주신단다. 너희는 너희 일 보거라. ‘파룬따파하오’만 기억하면 돼!” 이것이 어머니의 입버릇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3년간 혼자 사시면서 새벽 연공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드시는데 시간표대로 일과를 아주 질서 정연하게 보내십니다. 이 점만 봐도 사람들은 대법의 초범성에 경탄합니다. 속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하지 않는 자 손들은 박해 상황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 해도 마음속으로는 환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법을 수련하지 않으셨다면 예순이 넘은 그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객지로 돈 벌러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약값 한 푼 들지 않는 일이 속인 중에 몇 명이나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대법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대법이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공의 유언비어인 ‘1400례’나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광대들의 졸렬한 연극일 뿐입니다.

수련 후 어머니의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환골탈태한 신체적 변화 외에도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시는 인내심이 돋보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혼자 쉬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행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늘 남들은 청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와 집안일을 끝없이 늘어놓아도 어머니는 절대 말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속세의 잡담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대법이 좋다는 진상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발정념 시간이 다가 오는데 상대방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이제

가주세요. 제가 발정념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요'라고 정념을 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바로 '알아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가끔 어머니는 '애는 썼지만 환영받지 못할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올해 청명절 전 둘째 남동생이 아버지 묘소에 구덩이가 파인 것을 발견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올케가 사람을 불러 흙을 채우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날 해질녘에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왕복 2.5km가 넘는 길을 다녀오시자 가족(속인)들은 원망 섞인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어머니더러 가시라고 했어요? 저희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 어두운 길에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요. 정말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이 말에 마음이 상하셨고 다음 날 목이 붓고 목소리가 쉬었으며 귀까지 먹먹해지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한마디를 하려면 한참을 소리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집에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 어머니도 스스로 제고해야 함을 깨닫고 억울함, 불평, 원망심 등을 찾아내셨습니다. 자신의 집착심을 찾아 발정념으로 바로잡자 정말 신기하게도 즉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제는 전화기 너머 작은 목소리도 잘 들으십니다!

또 하나의 신기한 일이 어머니께 일어났습니다. 윗니가 다 빠진 데다 잇몸까지 얇아 틀니가 자꾸 빠져 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치아를 심는 수술인 '임플란트'를 권하며 개당 1만 5천 위안(약 3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시골 형편에 가당치 않은 일이라 어머니는 그냥 틀니 없이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랫니 몇 개가 남아있는 위치의 맞은편 윗잇몸(왼쪽)에서 기

적처럼 치아 하나가 솟아 나와 딱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딱딱하고 바삭한 옥수수 빵까지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대법을 수련해 받은 복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어머니가 마당 일에 매달리셨을 때 오른쪽 등 위쪽에 혹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2~3년 정도 됐는데 수련생들의 교류 글에서 그것이 ‘늙고 병들고 죽는’ 관념을 인정한 결과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발정념을 강화하셨습니다. 안으로 찾아 인식을 바로잡고 관념을 바꾸며 부지런히 연공하셨습니다. 이제는 등의 양쪽 균형이 거의 맞게 평평해졌으며 목소리 또한 더 맑고 우렁차졌습니다. 일흔이 넘은 외삼촌도 전화 통화 중 변화를 느끼고는 누님이 다시 젊어지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일상은 겉보기에 아주 평범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대법에 동화되는 생명으로서 그 평범함 속에는 영원한 비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근본 집착을 제거한 한 가지 깨달음

글/ 헤이룽장성 대법 수련생

[명혜망] 최근 수련생들은 모두 자신의 근본 집착을 찾고 있다. 나의 근본 집착은 무엇인가?

내가 처음 「전법륜」을 읽었을 때 매우 고무되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럼 누가 이치에 맞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당신은 지금 이 사회가

이치에 맞는다고 봐? 사람을 3, 6, 9 등급으로 나누고, 약육강식이며, 정치권은 부패하고, 관리들끼리 서로 감싸주며, 서민의 억울함은 호소할 곳이 없고, 승자가 왕이 되고 패자가 도적이 되며, 정직한 사람들은 거의 괴롭힘을 당해 살길이 없는데, 어디가 이치에 맞아?”라고 말했다. 책에서는 천리(天理)가 공평하며,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덕(德)을 보상으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음 법을 얻었을 때 나는 바로 이렇게 인식했다.

이후 법공부를 하면서 나는 자신의 많은 사람마음(人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껏 조금씩 제거하며 수련해 나갔고, 지금은 술한 집착이 많이 옅어진 것을 느낀다. 그러나 수련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수련할 줄 아는 상태로, 밖을 보는 것에서 안으로 찾기까지, 진정한 나와 거짓된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짓된 나, 사마(邪魔), 구세력을 인식하기까지, 이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넘어지고 부딪치는 마련(魔煉)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 근본 집착의 나쁨을 인식하지 못해 중공 악당과 투쟁하는 마음을 줄곧 제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박해를 당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독선적인 마음이 법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점점 더 느꼈다. 법의 지도가 없으면 도처에서 벽에 부딪히고 조금의 공(功)도 얻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깊이 안으로 찾아 그 뿌리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나는 그 뿌리가 바로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좋은 날을 보내고 싶은가?’ 답: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인간 세상에 좋은 날이 얼마나 있겠는가. 육신의 피곤함, 사람들 사이의 갈등… 어쨌든 번거로운 일이 너

무 많다. 게다가 인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지 않은가. 사부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끄시는데, 그곳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행복이 영원하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착하는가? 맞다, 인간 세상의 정치가 청명하고 죄악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밭과 아름다운 집, 그림 같은 풍경,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는데 집착했다… 아? 인간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서둘러 착실히 수련하고 사부님의 정법(正法)을 도우며 중생을 구하면 되지 않는가? 아이고! 알고 보니 내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사부님께서 고생하시며 우리 대법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기준에 도달하여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나는 여전히 이리저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느릿느릿하니, 어찌 사부님의 간곡한 기대와 온갖 고생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사부님께서 정법하고 계신다! 우주의 법을 바로잡고 계신다. 우주 각계층 층층이 부패된 법을 바로잡는 것은 각계 중생들을 위해 다시 최고의 생존 환경을 개창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 정사(正邪)를 분명히 구별하고, 마귀를 벗어나 도태와 훼멸을 면하게 하며, 나아가 도덕을 향상하여 신우주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생활에 걸맞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물론 수련 요소는 보류해야 한다. 인간 세상은 가장 좋은 수련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회 제도도 마귀 사상을 담은 사람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과 서방 일부 국가의 좌경화 현상이 바로 증거가 아닌가?! 개창과 제도는 바로

대법에 본래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사부님의 정법은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대법제자들도 정진실수(精進實修)하며 노력하여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사소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자신만의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집착하게 됐으니 얼마나 우스운가! 내 사상을 다 쏟아부어도 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세상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없으니 헛된 마음만 쓸 뿐이다. 사부님께서는 내가 진심으로 안으로 찾는 것을 보시고 깨우쳐주셨다. 마음속이 단번에 환해졌다. 법이 나의 집착을 깨뜨렸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았다. 정치에 집착하는 것은 유위심(有爲心)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고,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다. 자아에 집착하면 필연적으로 편협함으로 전체를 덮게(以偏概全) 된다. 고층이 이러하니 아래는 더욱 일엽장목(一葉障目,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림)이다!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 스스로를 봉쇄해 버린 것과 같아서, 더 이상 무한한 우주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사(私)다! 아래로 갈수록 더욱 물질화되며, 이것이 구우주가 부패된 근원이니, 나는 반드시 이것을 수련하여 제거해야 한다! 집착을 갖고 법을 공부하는 것은 법 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자 심성의 위치다. 법의 지혜는 나에게 강제로 주입되지 않으며 이것 또한 법이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집착심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며 법에서 법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

앞으로 나는 반드시 더욱 노력하여 마음을 닦고 집착을 제거하

며, 법을 잘 배우고, 진정으로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으며,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리지 않겠다.

이상의 깨달음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사평론 ■

각성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5년 양력 마지막 날, 나는 지난 1년간 중국의 변화를 써서 마비된 중국인들을 일깨우고 빨리 각성하게 하며, 중국공산당(중공) 악당[邪黨]에 대해 어떤 환상도 품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25년은 중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지만, 다가올 2026년은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런 국면은 모두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문제다. 왜냐하면 악당은 이미 모든 사람을 상품으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다. 악당 스스로 “중국인은 혁명의 벽돌이니 어디든 필요한 곳으로 옮긴다”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 악당 두목은 150세까지 살겠다고 떠벌리고 있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악당이 생체 장기적출을 공개적으로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눈에 서민의 목숨이 무었으로 보이겠는가?!

취업난

2025년 중국에는 실업 대란이 일어났다. 대학생은 취업하기 어렵고 박사, 연구생(대학원생), 학부생, 전문대생 모두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 자녀는 일자리를 아주 쉽게 찾지만, 기층 민중의 자녀는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렵다. 세무 조사가 엄격해지고 각종 비리에 대한 소급 조사가 진행되면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서민이든 악당 체제 내 인원이

든 2025년은 가장 많이 체포된 한 해였고, ‘인과응보[善惡有報]’가 가장 뚜렷한 한 해였다.

자살

2025년 각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악당은 소위 태평성대를 위해 보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서로 알리는 것도 막았다.

중공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수련하는 대법제자를 계속 납치하고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했다. 중국인은 악당이 끊임없이 조장하는 각종 공포 속에서 누구도 안전감을 느끼지 못한다. 2025년부터 악당 정부는 가장 큰 채무 불이행자가 돼 각 업계의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악당 주요 부서를 제외하고 각 하급 부서는 월급조차 거의 지급하지 못한다. 악당은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지만 그 돈은 모두 정권 탈취자와 그 측근이 흥청망청 쓰거나 빼돌렸다.

서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부 잘하면 살길이 열린다”는 말은 빈말이 됐다. 힘들게 창업한 사람들은 2025년에 거의 다 ‘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사회보험료 납부 강제 정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고, 새로운 회사법이 반포된 후 이전에 자본금을 약정만 하고 납입하지 못한 주주들도 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정부 정책이 ‘아침에 명령이 내리고 저녁에 바뀌는 것(조령모개-朝令暮改)’이 일상이 됐다. 집값 하락, 공사 중단(爛尾-썩은 꼬리: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흐지부지되거나 망쳐진 상황)으로 서민이 힘들게 번 피땀 어린 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 집값이

떨어져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합쳐도 집값은 ‘0’이 됐고, 팔아도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하다. 사람과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한다. 한때 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해 집을 소유하고 가족의 자랑이었던 이들도,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차량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차와 집을 산 것을 후회한다.

돌아갈 농촌도 없고 머물 도시도 없는 데다 정년 연장 등이 겹치고, 조령모개식 정책 하에 적지 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한다.

자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눈만 뜨면 ‘돈 들어갈 구멍’뿐이고, 적지 않은 사람이 공기 빼고는 다 돈이 든다고 말한다.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계량기는 갈수록 빨리 돌아간다. 적지 않은 곳에서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는 쓰지 않아도 돌아가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고 청원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악당이 대외적으로 돈을 뿌리는 동안 국내 서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기본적인 발언권조차 없으니 정말 구제 불능의 국면이다. 하지만 신이 보기에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자살은 출로가 아니다.

변하지 않는 진선인으로 자신의 언행을 가늠해야

2025년은 악당 내부 투쟁과 탐관오리 체포가 가장 많은 해였다. 2025년은 또한 가장 혼란스러운 해여서 온갖 난상(亂象)이 속출했다. 2026년에는 중국인이 무엇을 하든 진선인으로 자신의 언행을 가늠하고 선택하기를 바란다. 악당의 어떤 법률, 법규, 정

책으로도 가늠하지 마라. 왜냐하면 조령모개는 악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 오늘 반대한 것이 내일은 권장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권장한 것이 내일은 반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천리(天理)가 가늠하고 있고 인과응보가 모든 것을 가늠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마 인류에게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각종 예언을 보고 들었을 것이다. 또한 각지 천상(天象)에 나타난 이변은 사실 모두 인류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업력이 너무 커서 대도태가 시작됐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를 빌려 중국인들이 중공 악당을 똑바로 보고 명리(名利-명예와 이익)에 빠져 자신을 잃지 말기를 호소한다.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중토(中土)에는 태어나기 어려우며, 불법(佛法)은 듣기 어렵다.” 우리는 모두 신의 백성이다.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천상에서 내려왔으며, 어떤 이는 아주 높고 높은 천상에서 내려왔다.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명예, 이익, 정(情)이 아니라 반본귀진(返本歸眞)해 생명의 최초 발원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공은 사교(邪教)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줄곧 도둑이 도둑이야 하고 남을 모함하며 민중의 주의를 돌리는 이유다. 여러분은 더는 속지 말라.

더는 당 매체와 사악한 정책에 오도되지 말아야

끝으로, 나는 중국의 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로서, 악당이 파룬궁(파룬따파) 수련을 지지, 권장, 호소하던 데서 불법 탄압, 파룬따파 수련자 납치, 서적 소각, 대법 사부님에 대한 모함과 비방, 그리고 지속적인 탄압과 불법 가택수색 등을 하는 것을 직접 겪었다. 가소로운 것은 파룬궁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지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지만, 파룬궁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법률은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전국 각지에서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룬궁은 여전히 전 세계에 전해졌다.

진선인에 따라 직접 수련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파룬궁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을 향상시켜 나라와 국민에게 이롭고, 사람에게 백번 이롭고 해로운 점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수련자는 마음속 깊이 리(李)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중국인들이 더는 당 매체의 선전과 사악한 정책에 오도되지 말기 바란다.

‘말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그르친다’에서 시작된 이야기

글/ 문오국(聞吳國)

[명혜망] 중국에는 “말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말 한마디가 나라를 그르친다(一言興邦, 一言誤國)”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의 한마디 말이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나라에 재앙을 가져오고 백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1. 문자(文字)와 문혁(文革)

1965년 11월, 야오원위안(姚文元)이 발표한 ‘신편 역사극 <해서파관(海瑞罷官)>을 평함’은 ‘문화대혁명(문화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1966년 4월, 캉성(康生)의 아내 차오이어우(曹軼歐)가 베이

징대학에 상주하며 거점을 마련했고, 5월 16일 중공 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5·16 통지’가 통과됐다. 5월 25일, 네위안쯔(聶元梓)와 베이징대학 철학과 강사 몇 명은 베이징대학 식당에 ‘쑹쉬(宋碩), 루핑(陸平), 평페이원(彭珮雲)은 문화혁명 중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대자보를 공동으로 게시했는데,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를 전국 ‘제1호 마르크스-레닌주의 대자보’라고 찬양했다. 8월 5일, 마오쩌둥은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대자보를 발표했다. 베이징 고등교육기관의 조반파(造反派)들은 중난하이(中南海) 밖에 진을 치고 류사오치(劉少奇)를 끌어내어 비판하기 위한 일선 지휘부를 구성했다. 11월 13일, 마오쩌둥과 장청(江青)의 딸 리너(李訥,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베이징대학 사학과 재학)가 네위안쯔에게 마오쩌둥이 그녀의 상하이 대교류(串聯)를 묵인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단계별로 문혁 불길의 기세가 점차 형성됐다.

2. 두 작가의 문혁 평가

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본래 질서 정연하던 중국 사회를 폭발적 광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중국의 현대 작가 친무[秦牧, 본명 린파이광(林派廣), 1919~1992]는 문혁을 이렇게 평했다. “이것은 참으로 전대미문의 대재앙이다. 수백만 명이 곤궁에 처했고, 수백만 명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으며, 수많은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수많은 아동이 불량배와 악당으로 변했고, 수많은 서적이 불태워졌으며, 수많은 명승고적이 파괴됐다. 수많은 선현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수많은 죄악이 혁명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만약 친무의 어경(語境)에 다소나마 ‘혁명’이라는 단어를 긍정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혁명(革命)’이라는 두 글자의

자면(字面)을 보면 ‘혁명’이 ‘천명을 바꾼다(變革天命, 역천)’는 것을 의미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더 직접적인 글자 뜻으로 보면 ‘혁(革)’은 벗겨낸 짐승의 가죽이고, ‘명(命)’은 생명, 목숨이다. 다시 말해 ‘혁명’이라는 단어는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며, 그 자체의 정의에는 ‘진보’나 ‘발전’의 함의가 없다.

1976년 10월 6일, ‘문혁’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1979년 봄, ‘문혁’ 초기에 강제로 끊임없이 자술서를 써야만 했던 중국 현대 작가이자 번역가인 바진[巴金, 본명 리야오탕(李堯棠), 1904~2005]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오늘 내가 지난 10년 동안 행한 일과 다른 이들이 행한 일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나 자신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었는지, 심지어 잔인함과 황당함을 엄숙함과 올바름으로 여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 10년의 고난 가득한 삶을 종결하지 않고, 철저한 자기 해부로부터 당시에 발생한 일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언젠가 상황이 변했을 때 나도 모르게 다시 최면에 걸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이것은 마음의 빛이며, 나는 반드시 조속히 갚아야 한다.”

3. 네위안쯔가 ‘시란종기(始亂終棄)’된 역사적 교훈

1978년, 네위안쯔는 감옥에 갇혔다. 1938년에 입당해 1940년 주더(朱德)의 차량 대열을 따라 옌안(延安)에 가서 ‘중앙당교’에서 학습하고, 1960년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부주임으로 임명됐으며, 1963년 봄 베이징대학 철학과 당 총지부 서기, 학교 당위원회 위원, 베이징시 당 대표를 지낸 노 당원이자 노 옌안인(老延安人) 네위안쯔는,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반혁명 선전 선동죄,

무고죄, 모함죄로 17년형과 정치 권력 박탈 4년을 선고받았다.

천지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천지 위에는 신이 있다. 운동을 빌미로 정치적 자산을 챙기고 승진해 재산을 모으며, 이견을 가진 이를 탄압하고 백성을 괴롭히며 거짓말을 유포하고 선악과 시비를 전도한 자들은 모두 남을 해치고 결국 자신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문자와 언론으로 경거망동하거나 심지어 대중을 미혹하는 자들은 모두 제때 수렴하고 반성해, 잘못을 거듭하며 잘못된 길을 계속 가서 깊은 응보를 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

역사는 명경(明鏡)과 같아서 인심의 선악과 시비를 비추어 후대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게 한다. 안타까운 점은 교훈을 얻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4. 또 한 차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정치 혁명, 당신은 똑똑히 보았는가?

1999년 중공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광적으로 박해한 이래, 당 매체는 파룬궁을 비방하고 욕하는 대량의 기사와 영상물을 쏟아냈고, 각 기관은 불법(佛法)을 모함하는 대량의 현수막과 표어를 게시했다. 비록 종이 한 장의 글이나 구호 한 마디일 뿐이라 할지라도, 불법에 대한 저주는 세상을 속이고 오도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깊은 죄업을 쌓는 일이다.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일으킨 이 피비린내 나는 정치 혁명은, 억만 파룬궁수련자와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친지들의 기본 인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의 성인들이 사악한 죄면에 걸려 전국적인 생체 장기적출 ‘상태(常態)’를

조장하고 빚어내는 도구로 변하게 했다. 또한 원래 천진하고 귀여웠던 수많은 소년 아동과 청년 학생들이 선량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입만 열면 “죽여라, 죽여라” 하고, “나는 미국이 제일 싫어”, “내가 제일 죽이고 싶은 건 일본인 이야”라고 하며 ‘분신’ 거짓말에 익숙한 괴물로 변해 각종 업보를 초래하게 했다. 장쩌민은 죽었고 사람들은 부패치국의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화근이 이미 묻혀 뿌리를 내리고 짹이 터서 성숙해 결과를 맺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2004년 명혜망 소식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치양(祁陽)현 전경위 주임 장쉬유(張緒友)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 파룬궁을 모함하는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라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그는 직접 장식점에 가서 거대한 섬유판 현수막을 만들어 경위 정문 위에 못 박아 걸었고, 폭죽 두 바구니를 터뜨리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지지했다. 사악한 현수막은 몇 년 동안 걸려 있었으나, 장쉬유 자신은 이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비록 장쉬유가 상부의 배치에 따라 불법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라 해도, 현수막을 만든 것은 그였고 과보(果報)를 감당하는 것도 그였다. 그 상급자에게는 또 그 상급자의 과보가 기다리고 있다.

예로부터 부처를 공경하면 복을 얻고, 부처를 해치면 재앙을 부른다고 했다. 부처를 비방하고 해친 자들의 결말은 모두 처참하고 쓸쓸했다.

5. 맷음말

네위안쯔가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것은 그녀의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며, 그녀도 먼저 이용당한 후 나중에 짓밟힌 것이다. 장쉬

유의 비방 현수막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지도 원리로 삼는 불가(佛家) 수련 대법을 모독해 스스로 횡액을 불러와 참사당하게 했다.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여전히 생각 없이 모함하는 글을 쓰고 여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불법을 욕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겠는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근거 없이 날조되고 확인되지 않은 모함의 글은 한 자도 써서는 안 되며, 제멋대로 왜곡하여 부처님을 해치는 광고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머리 위 삼척 위에 신이 계시니,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신께서 심판하신다.

종이 한 장의 글, 현수막 하나, 편액 하나라도 부처님을 한 번 비방하면 죄가 삼천 번 쌓여 응보를 부른다. 파룬궁은 바로 진선인 우주 대법이다. 진선인을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파룬궁 진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어떻게 응보를 화해(化解)할 것인가? 진선인을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진상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시비를 명확히 가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면, 불운은 저절로 사라지고 복신(福神)이 조용히 찾아올 것이다.

‘벼락부자’, 과연 좋은 일인가?

글/ 우징(宇澄)

[명혜망] ‘벼락부자(一夜暴富)’란 어떤 기회나 수단을 통해 신속하게 거액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이는 많은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로 여기며, 얻지 못해 안달하는 대상이 됐다. ‘벼락부자’, 과연 좋은 일인가?

1. ‘벼락부자’의 출현

중국 사회에서 ‘벼락부자’에 대한 숭배는 주로 개혁개방(1978~1990년대)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났다.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경제와 인터넷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벼락부자가 될 기회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일부 사람에게 자유사회 중산층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정상적인 물질적 삶을 누리게 했지만, 동시에 중국공산당(중공)의 부패 통치와 인권 박해에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다. 불과 30~50년 만에 중국 사회의 경제 환경, 인생 가치관, 사회 도덕에 홍수나 맹수와 같은 파괴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1) ‘벼락부자’를 숭배하는 시기와 배경

지난 세기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중국에는 국가 정책 지원이나 선점을 통해 부를 얻은 집단이 일부 나타났다. 이때의 부 축적이 완전히 ‘벼락부자’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돈 벌 기회가 많아지자 가치관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불로 소득을 노리거나 투기, 사기를 통해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늘

어났다.

진정한 의미에서 ‘벼락부자’에 대한 승배는 2000년대에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이 온라인 쇼핑몰, 주식, 온라인 마케팅 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해 거액의 부를 얻었다. 이런 현상은 전통문화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지만, 전통 세대의 눈에는 명백히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전통 매체든 뉴미디어든, 영화·드라마·소셜 플랫폼이든 만화·서적이든 가리지 않고 ‘벼락부자’가 조회수를 올리는 치트키가 됐다. ‘벼락부자’라는 네 글자가 포함된 제목, 글, 사진이 사람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버젓이 나타나 끊임 없이 이런 사상을 주입한다.

고대 소설 ‘금병매(金瓶梅)’는 ‘음란함과 도둑질을 가르치는(誨淫誘盜)’ 책으로 불린다. ‘음란함을 가르친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 고대 소설 중 처음으로 남녀의 사정(私情)과 성행위를 대량의 지면을 할애해 지속적으로 묘사하며 이야기 전개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도둑질을 가르친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작중 인물이 획득하는 부가 대부분 불의한 재물(不義之財)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서문경(西門慶)이 불의한 재물로 집안을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지만 즉각적인 도덕적 징벌은 결여돼 있다. 둘째, 관직 사회의 부패를 ‘정상 상태’로 묘사했다. 관직에 정가표가 붙어 있고, 법률은 금전으로 조작될 수 있으며, 공권력은 철저히 사익을 위해 복무한다.

사회적으로 욕망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고취하고, 이익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방종하고 부도덕한 관념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상세한 묘사가 교사(教唆)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나 인륜을 파괴하고 천리에 어긋나는 생활 방식은 신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금병매’의 작가가 지옥 어느 층에서 업보를 치르고 있는지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행일수록 반드시 신중하고 자중하며 천리(天理)를 꺼려야 한다는 점이다. 천법(天法)은 인정(人情)을 봐주지 않으며 돈은 더더욱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벼락부자’ 주입이 초래한 결과

‘벼락부자’ 사상은 중공의 ‘부패치국(腐敗治國)’이 구현된 것 중 하나다. 이것이 널리 퍼지고 부의 빠른 축적을 고도로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수천 년간 유(儒)·불(佛)·도(道) 3가가 중국인을 위해 확립해 놓은 가치관이 전복됐다. 또한 전체 사회 풍조와 도덕적 최저선의 붕괴를 놀라운 속도로 촉진했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비를 따지지 않고 선악을 전도하며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을 죽이는지 보면, 이런 파괴 효과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도덕적 최저선이 계속 무너져도 자신과는 무관하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느낌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다. 마치 쓰나미가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삼켜도 자신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홍수가 집 대문 앞까지 들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벼락부자’ 사상을 주입한 후 초래된 결과는 다음 몇 가지 측면이 있다.

(1) 공리주의: 공리주의와 불로소득 사상은 갈수록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빠른 보상’을 추구하게 만들어 조급하고 불안하게 하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든다. 허영심과 비교 심리가 유행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부를 축적하지 못한 많은 젊은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자기 인생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 사회 양극화 심화: ‘벼락부자’ 현상의 유행은 중공의 죄악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미국인 포함)이 중공에 대해 허망한 환상을 유지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분화하고 급격히 확대됐다. 소수가 혈연, 인터넷 창업,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통해 벼락부자가 됐지만,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소외돼 인간의 존엄과 인간으로서 갖는 가치를 더욱 상실했다.

(3) 불법 행위 조장: ‘벼락부자’ 문화에 대한 숭배는 대량의 투기 행위를 촉진하고 조장한다. 많은 사람이 단기간의 부를 쫓기 위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도박 등 고위험 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험적이고 비이성적인 투자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더 많은 부정한 수단을 낳아 불법 자금 모집, 사기, 가짜 불량 상품, 사회적 신용 붕괴 등 일련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4) 중국인과 전통 가치관의 괴리: 전통적인 중국 문화는 ‘근면

성실하게 노력해 부자가 되기(勤勞致富)', '성실과 신용(誠信)', '남과 선하게 지냄(與人爲善)',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림(人命關天)', '자존자중(自尊自重)', '타인 존중', '경로애유(敬老愛幼,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함)',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벼락부자'에 대한 숭배는 젊은이들이 전통문화 속의 이런 올바른 사상과 순수하고 바른 가치관을 경시(심지어 멸시)하게 만들어 타락한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점차 상실하게 한다.

2. '벼락부자'에 대한 중국 전통문화의 견해

중공이 정권을 훔치기 전, 중국인은 유가·도가·불가의 영향을 비교적 깊이 받았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덕(德)을 잃어 응보를 받게 되며,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여겼다.

유가 문화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말한다. 유가의 눈에 부(富)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이지만, 부의 축적은 반드시 도덕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근면과 지혜를 통해 얻어야 한다. 여행을 바라고 지름길을 찾으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사상이나 언행은 모두 취할 바가 못 된다.

도가는 '무위이치(無爲而治)'를 주장하며 자연과 도덕의 법칙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도가가 보기에는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며, 심지어 과도한 부와 물욕은 사람 내면의 평화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간단하고 소박하며 본진(本眞)으로 회귀하는 생활 방식을 제창하고 사람이 하늘, 땅,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누군가 급공근리(急功近利,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만

급급함)의 방식으로 ‘벼락부자’가 된다면, 도가는 이런 행위가 ‘도(道)’에 위배되며 사람이 본심을 잃게 한다고 볼 것이다.

불가는 재물을 ‘무상(無常)’한 것으로 여겨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줄 수 없고 도리어 탐욕과 고통을 낳기 쉽다고 본다. 따라서 재물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한 수단으로 빠르게 부를 획득한다면 불가는 이를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며,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은 불교 사찰이든 도교 도관이든 모두 온갖 더러운 것을 감추고 있어 더는 청정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세간에 있으되 마음은 세간 밖에 있는 파룬궁수련자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다. 이 아홉 글자를 진심으로 염하면 선념(善念)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신불도(神佛道)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송(北宋)의 매화시(梅花詩)는 이렇게 말한다. “뜰 가득한 배꽃 봄 주인이 있으니(一院梨花春有主) 밤새 비바람 몰아쳐도 근심할 것 없네(連宵風雨不須愁).” “세상에 절로 태평한 날 있으리니(寰中自有承平日) 사해를 집 삼은들 누가 주인이고 손님이랴(四海為家孰主賓).”

3. ‘벼락부자’에 대한 서양 전통의 견해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문화와 유대교, 기독교는 서양 문명의 초석이다. 그중 고대 그리스 문화는 이성적 사고, 민주 정치, 철학적 탐구와 예술 미학을 강조해 서양의 사상 체계와 정치 체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대 로마 문화는 법률, 정치 제도(공화정과 제국 제도 등), 공학 기술 등의 면에서 서양 문명에 심원한

영향을 줬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양의 도덕, 윤리, 법률 체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 정치, 교육 등 각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서양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벼락부자’를 어떻게 볼까?

1)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은 ‘미덕(virtue)’과 지혜, 특히 이성적 사고를 통해 얻은 성취를 숭상했으며 재물에 대한 시각이 단순한 물질주의가 아니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재물 자체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우아한 삶’과 ‘내면의 균형’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의 눈에 ‘벼락부자’는 미덕이 결핍되고 지나치게 공리적인 인생 추구로 보일 수 있다.

2) 고대 로마

고대 로마에서도 재물은 인생의 일부분으로 간주됐다. 전쟁, 정치,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지혜나 합리적인 상업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 일정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명예’와 ‘평판’이었다. ‘벼락부자’와 유사한 현상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었다면 사회 질서와 도덕 기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다.

3) 유대교와 기독교

‘십계명’은 여호와가 유대인의 선지자이자 인도자인 모세를 통해 유대인에게 반포한 신앙과 생활 율법이며, 기독교인의 인생 지

침이기도 하다. ‘십계명’은 정직, 생명 존중, 가정과 타인 존중을 제창하며, 이런 가치관은 서양 사회의 법률과 윤리 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와 같은 윤리 규범은 오늘날까지도 서양 법률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기독교인의 ‘구약’과 ‘신약’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도덕 및 신앙 계약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인간을 위해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사면(赦免)을 강조했다.

덧붙이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인 평등’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 법률, 복록수(福祿壽)에서의 태생적 평등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하나님(창세주)이 창조했고, 누구나 원죄(업력)가 있으며, 누구나 하나님(창세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도덕적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왕, 귀족, 농민은 ‘죄와 구원’ 문제에서 평등하다.

기독교는 재물이 단순히 개인의 자기만족과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타인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제창한다.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티베트인들, 즉 한족(漢族)에게 오염되기 전의 티베트인들도 재물과 보화에 대해 추호의 탐욕도 없었다.

이런 도덕적 전제하에서 ‘벼락부자’는 비록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남은 인생의 복을 대량으로 소모하게 된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것이라면 서양 전통문화가 강조하는 인간의 도덕 및 사회적 책임과 완전히 배치된다.

맺음말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통문화는 모두 인간의 도덕, 내적 수양,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하룻밤 벼락부자 현상은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 윤리,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모두 취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본성이 착하기도 하지만(人之初 性本善), 악하기도 하다(性本惡). 누구나 불성(佛性)이 있고 마성(魔性)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악, 교만, 이기심을 선택하기 쉬운 천성적인 경향이 있다. 부와 권력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흔히 인간의 교만, 탐욕, 질투 등 마성이다. 특히 하룻밤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감사와 보답을 모르고 향락 추구, 안하무인, 물욕 팽창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쉬우며 심지어 철저히 타락해 헤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평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타인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善待)이 복이다. 신 앞에서 겸손과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아끼는(惜福) 것이며 인생에 필수적인 대지혜다.



▲ 새해부터 션원 8개 예술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대만의 8개 도시에서 동시 공연했다. “션원은 관객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관념의 변화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구원입니다.” “에너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감동케 하고, 당신을 평온하게 하며, 마치 평화, 아름다움, 영성, 사랑과 희망의 힘처럼 당신의 심신을 씻어줍니다.” 서양 주류 엘리트들은 공연 관람 후 각기 다른 언어로 내면의 감사와 얻은 바를 공유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02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672만 273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